

정찬주 장편역사소설

깨달음의 빛, 청자

천년비원을 품은
강진청자 이야기

신라 말 탐진인 장보고는 중국 월주청자 기술을 강진에 들여온다.
이후 고려시대의 강진도공들은 고려청자를 천하제일의 비색으로
승화 발전시킨다. 마침내 강진은 세계적인 청자의 성지가 된다.



강진군
GANGJINCITY

월주 신라도공 귀국

진눈깨비가 흩날리는 동짓달이었다. 장보고는 알아 장영에게 신라사신 일행이 양주에 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아마도 배가 당항성을 출발하여 계절풍인 삭풍을 이용해 산동반도 등주 쪽으로 올라갔다가 양주로 내려갔을 터였다. 그러나 항해가 서투르면 삭풍에 떠밀려 명주까지 가기 일쑤였다. 장보고는 신라인 출신 군관을 불렀다.

“박 군관이 지방 양주로 가서 신라사신 일행을 장안까지 안내하고 돌아와볼게.”

“군사를 두 명만 주십시오.”

“그래야제. 사신 일행이 양주로 돌아올 때까지 호위해주게.”

박 군관은 주로 사신 일행을 호위하는 장보고의 부하였다. 작년에 당항성에서 이십대 초반의 승려 한 명을 장삿배에 태우고 온 사람도 박 군관이었다. 그 승려는 부석사에서 온 무염(無染)이었다. 적산 신라소 군사들은 신라와 당나라를 오가는 장삿배에 파견 나가 장사꾼들을 보호하는 일도 했던 것이다.

또한 장삿배에 오른 군관은 신라 왕실의 소식을 장보고에게 낱낱이 보고해야 했다. 장보고가 최근에 받은 보고는 웅천주(현 공주) 도독 김현창의 반란 소식이었다. 무진주(현 광주) 도독, 청주(靑州, 현 진주) 도독에 이어 웅천주 도독 등 변방을 전전하던 김현창은 왕위에 오르지 못한 김주원의 아들로써 불만이 컸다.

그의 반란군은 초반에는 신라의 서쪽과 남쪽에서 기세를 올렸다. 순식간에 무진주와 완산주(현 전주)에 이어 사벌주(현 상주), 국원경(현 충주), 서원경(현 청주), 금관경(현 김해) 등을 점령했다. 그러나 반란군은 서라벌과 가까운 성산(현 성주)에서 순천군 우두머리 장수 출신인 김원웅과 김균정, 김우징이 이끄는 대군과 맞서 싸우다가 참패했다.

이후 김현창은 웅진성으로 돌아와 10일 동안 수성전을 펼치며 반항했으나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궁지에 몰린 김현창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웅진성은 함락됐다. 이처럼 나라 안이 크게 흔들렸던 반란 소식도 장삿배에 오른 박 군관에게 들었던 것이다. 박 군관이 말했다.

“대사님, 사신 정사께 전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있제. 으째 읍졌는가. 노비로 팔려온 우리 신라 양민덜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허게. 정사나 부사께서 황제 폐하께 주청허믄 들어주실 것이여.”

“알겠습니다. 대사님.”

“몇 년 전에는 황제께서 우리 신라인 노비매매를 금지시킨 일도 있으니까
현 말이네.”

“정사나 부사 사신께 대사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적산포에서 양주는 겨울철 삭풍을 타고 내려가면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다. 더구나 양주에는 장보고에게 호의적인 왕씨 형제가 살고
있었으므로 장보고의 군사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두 달 후.

박 군관이 신라 사신일행 길잡이와 호위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다.
이때도 장보고는 박 군관에게서 보고를 받았다. 첫 번째는 당 목종이
인덕전에서 신라 정사와 부사를 접견했을 때, 정사 김주필이 신라인
출신 노비들을 방환(放還)해 달라고 간청하자, 허락했다는 소식이었다.
방환이란 해방시켜 돌려보낸다는 뜻이었다. 두 번째는 김주원의 증손자
김흔이 사신 일행으로 와서 숙위로 남았다는 소식이었다. 숙위는 보통
왕자가 인질 성격으로 왔던 것인데 특이한 경우였다. 김흔은 왕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더구나 김흔은 김주원의 증손자였으므로 숙위로
온 것이 그 집안 내력으로 보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반란군 우두머리

김헌창은 김흔의 할아버지 김종기와 형제 항렬이었으므로 그랬다. 그러나 김흔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숙위를 자청했는지도 몰랐다. 장보고 생각도 김흔이 할아버지 김종기, 아버지 김장여에 이어 집안 내력이 권력을 탐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희소식은 당구덜에게 붙잡혀 노비가 된 우리 양민덜의 방환이네.”

“월주에 신라인 노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나도 알고 있네. 나는 거그 신라 양민덜을 모다 고향으로 보내줄라고 허네.”

장보고는 일조 신라촌 촌장 김시방을 따라 월주에 갔다가 노비로 팔려온 신라인 도공들을 잊지 못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신라인 도공 눈에 눈물이 그렇그렷던 것이다.

“으쨌든 김흔 집안이 고로코름 살아온 것은 쪼간 거시기허제.”

“그렇습니까?”

“양지만 찾아댕기는 집안이라서 허는 말이네.”

김헌창은 왕위를 물려받지 못한 아버지 김주원의 한을 풀고자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나름대로 명분은 있었던 것이고, 김헌창과 형제뻘인 김종기 일족은 헌덕왕에게 충성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이었다.

“시상 일은 변화무쌍한 것이여. 양지가 은제 음지로 바뀔지 모르는 뱀이네.”

“김혼은 숙위를 하고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 대사님은 그를 돕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 보았그만. 내 고향 탐진현 대구소 향리께서 사람이 의를 보고도 행하지 않으믄 용기가 읊는 거라고 말씀 헌 적이 있네. 그러지 않는가?”

박 군관은 장보고의 말에 군말을 덧붙이지 못했다. 장보고의 언행에는 저울눈금 같은 기준이 있었다. 그 기준은 바로 의(義)였다. 장보고는 무령군 시절에 군중소장으로서 절감하곤 했는데, 의가 있으면 따르는 무리가 절대로 흠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적산 신라소에도 당 목종의 조칙이 문서로 내려왔다. 노비가 되어 끌려온 신라 양민들을 방환하라는 황제의 명이였다. 장보고는 즉시 장영을 불러 조칙문서를 소중하게 챙기도록 지시했다. 그런 뒤 바로 적산포로 내려가 명주로 갈 신라소 배를 점고했다. 배는 이상이 없었고, 선장 이하 돛잡이, 키잡이, 노잡이들은 물론 스무 명의 공사들까지도 모두 결원 없이 대기 중이었다.

장보고는 지체하지 않았다. 다음 날 이른 새벽에 적산포를 출발했다. 때마침 거센 삭풍이 불어 배는 최고의 속도로 황수바다와 흑수바다를

지나 백수바다 쪽으로 남진했다. 장영 압아도 동행했다. 월주의 청자가마 주인들이 혹시나 거칠게 반항한다면 무력행사가 필요할 터였다. 장보고는 장영 압아와 박 군관에게 미리 지시했다.

“황제의 명이니 저항할 사람은 읊갓제. 그런디도 흥기를 들고 덤벼들 자가 있을지 모른게 긴장해야 써.”

“황제의 명을 거역하면 즉시 처형할 수 있습니다.”

장영이 당연하다는 듯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장보고는 대화로 해결하자고 말했다.

“장 압아, 청자가마 주인덜도 당구덜에게 은전깨나 주고 노비를 샀을 것인게 억울허다고 항변할 거네. 금께 몬자 설득부터 해보드라고잉.”

“지금까지 신라인을 부려먹은 것을 생각하면 충분하게 갚았다고 생각합니다.”

장영의 생각도 일리는 있었다. 장보고가 보았다시피 그들은 도공 일만 한 것이 아니라 하인처럼 가마 주인집에서 허드렛일까지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틀 밤을 자고나자 백수바다가 나타났고 명주가 아스라이 보였다. 다행히 암초 지대에 들어서서도 단 한 번도 배 밑을 긁히지 않고 명주 앞바다에 이르렀다.

“신라소 군사덜은 들으라. 우리는 명주 관아에 들렀다가 바로 자계 치소를 갈 것인데 그리 알라.”

“자계는 얼마나 갑니까?”

“한 나절이면 충분헌께 당일치기가 가능할 것이다.”

장보고 일행은 명주 관아를 들러 튼실한 말을 빌려 탔다. 그리고는 바로 자계 치소로 올라갔다. 마침 절도사가 구면이었으므로 은전꾸러미를 맡겨놓고 말을 쉽게 빌릴 수 있었던 것이다. 장보고는 서둘렀다. 자계 치소에서는 명주와 달리 황제의 조칙문서를 보여준 뒤 월주가마로 가서 신라인 도공들을 데리고 갈 생각이었다. 월주가마 주인들이 신라인 도공들을 멀리 격리시킬 수도 있으므로 급습하듯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했다. 자계 치소 우두머리 관원은 낮설었다. 장보고가 예전에 만났던 관원이 아니었다. 장영은 관원을 따라 치소 안으로 들어갔다. 장영이 관원에게 신분을 밝힌 뒤 황제의 조칙문서를 내밀었다.

“우리들은 황제의 명을 따를 뿐이요.”

“알겠소이다. 나는 황제 폐하의 명대로 협조하겠소.”

조칙문서를 보고 있는 관원이 마치 황제를 알현하고 있는 것처럼 벌벌 떨었다. 관원이 장보고의 군사보다 한 발 앞서서 월주가마들이 있는

상림호로 갔다. 다행히 월주가마 주인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관원 앞에 모였다. 관원이 소리쳤다.



“황제 폐하의 명입니다! 오늘부로 신라인 도공들을 방환하라.”

“관원 나리, 우리는 은전을 지불하고 노비를 샀소. 그런데 아무리 황제 폐하의 명이라고 하더라도 그럴 수는 없소.”

그때 장영이 긴 칼을 빼어들고 말했다.

“이놈! 황제 폐하의 명을 거역하고서도 살아남을 줄 아느냐!”

“내 재신을 빼앗는 사람은 누구든 도적이요. 황제 폐하도 마찬가지요.
내 말이 틀렸소?”

“이놈이 사람들 앞에서 황제 폐하를 능멸하는구나!”

장영의 칼이 허공에서 번쩍 했다. 순간, 장영에게 거칠게 향의하던 청자가마 주인의 목이 땅바닥에 떨어져 뒹굴었다. 그제야 청자가마 주인들이 장영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자계 치소 우두머리 관원이 다시 소리쳤다.

“지금 보았을 것이다. 황제 폐하의 명을 어기면 바로 극형이다! 나는 황제 폐하의 조칙문서를 보았느니라. 그러니 그대들은 신라인 노비들을 모두 풀어주어야 한다, 알겠는가?”

청자가마 주인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하나 둘 일어났다. 신라소 군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마 주변의 동막으로 가더니 노비로 팔려 온 신라인 도공들을 앞세우고 돌아왔다. 남루한 누더기 차림의 도공들 중에 한 명이 장보고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다. 예전에 보았던 탐진 출신의 도공이었다.

“여그서 살다가 월주 구신이 되는 줄 알았그만요.”

해남, 부안 출신의 도공도 장보고 앞으로 와서 울먹였다.

“인자 고향으로 돌아가는게라우?”

“내 장삿배로 델꼬 갈 것이요. 고향에서도 을마든지 청자를 땡글 수 있을 텐께 묵고 사는 일은 걱정허지 마씨요.”

“아이고메, 감사허요, 감사합니다요.”

신라인 도공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스무 명 정도 모였다. 장영이 엄하게 말했다.

“이 일은 우리 신라사신이 황제 폐하께 간청해서 이루어진 것이요. 또 여기 대사님께서 힘을 쓴 것이니 그리 아시오.”

신라 도공들이 하나같이 장보고에게 머리를 숙였다. 탐진 출신 도공이 말했다.

“대사님, 지덜은 어처케 대사님의 은혜를 갚어야 헐게라우?”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 있소. 고향에 가더라도 여그 청자를 땡그시오. 그것이 내게 은혜를 갚는 길이요.”

장보고는 군사들이 빌린 말에 도공들을 태우게 했다. 장보고도 탐진 출신 도공과 함께 말에 탔다. 장영이 선두에 섰다. 이윽고 장영이 “출발!” 하고 소리치자 20여 마리의 말들이 일제히 회오리바람처럼 무리지어 달렸다.

신라 도공들은 일단 명주에서 신라소 배를 타고 적산으로 갔다. 모두들 바로 고향으로 가고 싶어 했지만 장보고는 신라를 오가는 자신의 장삿배에 실어 보낼 생각이었다. 신라소 배 말고도 장보고에게는 몇 척의 장삿배가 있었던 것이다. 재당신라인들의 소금과 솥으로 등주, 양주, 명주, 항주 등지에 무역을 하던 장보고가 배를 늘린 이유는 신라 동쪽 바다 건너에 있는 하카타(博多)까지의 항해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항해하려면 신라 탐진현이 중간 기항지가 될 수밖에 없을 터였다.

적산으로 돌아온 장보고는 경사를 또 맞았다. 의형제를 맺은 정년이 신라소에 와 있었다. 정년도 신라 도공들을 데리고 온 장보고를 보고는 감격한 나머지 넋죽 큰절을 했다.

“성님, 참말로 대단하시요.”

“그때 동상이 만난 탐진 도공도 있네. 막사에 가서 만나보소.”

“시방 그를 만나 지 소식을 부모님께 전해볼라요.”

“정 족장님이 어처케 거시는지 궁금허네. 근디, 동상에게만 고백할 일이 하나 있네. 동상이 알다시피 난 우멍헌 사람이 아니네.”

“뭇인디라? 으째 쪼깐 거시기허요잉.”

“동상은 축이 좋아부러. 거시기헌 일이랑께.”

작년 초겨울에 우연히 벌어진 일이었다. 등주 신라방 방정 집에 초대 받아 갔다가 생긴 인연이었다. 방정의 수양딸인 백제계 여인을 만났던 것이다. 방정이 삼십대 중반이 된 장보고에게 외롭지 않느냐며 술자리에서 수양딸을 소개해 주었던바, 그날 이후 그녀에게 아기가 생겨버렸던 것이다.

“성님이 여자를 만나셨그만요.”

“거시기허게 자부렸는디 아기가 생겨부렸단마시.”

“성님 나이가 올해 서른일곱이신가? 늦었지라. 근디 아기는 언제 볼 수 있을게라?”

“올 가실에나 머시기허겄제.”

“행수님은 시방 으디 거시요?”

“여그 신라촌으로 와 있제.”

“성님이 소개해 주씨요. 인사라도 드리고 짚소.”

“알았네. 군사덜에게 소문은 내지 말소. 내 처지가 거시기해서 남세시롭네.”

“아따, 성님. 참말로 의뭉허요잉. 하하하.”

그해 산동반도의 봄은 유난히 짙은 안개가 자주 끼었다. 황수바다에서 올라온 해무였다. 장보고는 약속한 대로 여름철 태풍이 오기 전에 자신의 장삿배에 도공들을 태워 신라로 보냈다. 도공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고향으로 갔다. 일부는 남기도 했다. 그들은 내년에 장보고가 창건할 법화원에서 울력할 사람들이었다. 장보고는 정년에게 지시하여 수십 명의 목수와 사병들과 인부들을 올려 보내 법화원을 조성하려고 했던 것이다.



적산의 가을은 탐진보다 빨랐다. 숙위를 하던 김흔이 적산 신라소에 편지를 보냈다. 귀국하려고 하는데 배를 주선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장보고는 장영 앞에서 즉시 거절했다.

“김흔을 믿을 수 없네. 공께 도와줄 수 없제.”

“나중에라도 대사님을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수완이 좋은 사람이라서 내가 아니더라도 그 자는 무사히 귀국할 것이네.”

장영은 장보고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김흔이 편지에다가 자신의 관작을 은근히 자랑하며 부탁했지만 장보고가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당 목종이 금자광록대부 시태상경(金紫光祿大夫 試太常卿)이란 관작을 김흔에게 주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장보고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 달 후, 김흔은 장보고의 예상대로 적산 신라소의 도움 없이도 무사히 귀국하여 숙위를 마친 공을 인정받아 남원태수로 부임했다.

<계속>